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

Reflection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i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우 윤 희 (Yun-Hee Woo)*

김 종 성 (Jong-Su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2.3 도서관의 역할 |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4 도서관의 가치와 이념 |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창작동화에 나타난 사서의 모습과 역할 |
| 1.3 선행 연구 | 3.1 동화 속 사서 |
| 2.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의 모습과 역할 | 3.2 사서의 외모와 인상 |
| 2.1 동화 속 도서관 | 3.3 사서의 역할 |
| 2.2 도서관의 모습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 속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 창작동화 14편을 선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화 속에 나타난 도서관은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단장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의 역할은 독서활동에 편중되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활용이나 문화활동 등에 대한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는 거의 모두 여성이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위해 노력하지만 교육자적 측면 등의 다양한 직업적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동화 속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식되고 이해되는 도서관과 사서의 수준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age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i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For this purpose, fourteen children's fictions that the main background is library are analyzed. Library's role appeared in the children's fictions is focused on reading books. In the children's fictions, librarians are usually women and described as friendly and active people. And their role is shown as strongly committed to children's reading activities. Library services and activities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of children is hardly reflected in the fictions. It implicates that the libraries and librarians in children's literature is very reflective of those in the real world.

키워드: 동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도서관 이미지

Children's Literature, Public Library, School Library, Librarian, Library Image

*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ummystory@naver.com)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77-298,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77]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은 허구이지만 현실을 반영한다. 작가와 연출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반영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대중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동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화는 어린이가 즐기는 문학이며, 동화 속 사실과 상상의 세계는 작가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현실이 오목하거나 볼록한 투과장치를 거쳐 반영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창작된 동화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를 통한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을 통한 이미지 형성을 어린이 이용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도서관과 사서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에게 어떤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어린이 책 출판은 전체 출판 종수 중에서 문학 장르 다음으로 많으며(신종락 2009), 출판 부수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동화에서 도서관이 주요 배경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린이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이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변화가 창작동화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화의 주된 독자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동화 속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미래의 도서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미래의 도서관상을 점검하고 제시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묘사, 서술, 설명 등의 표현을 통해 이미지와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국내창작동화로 한정했다. 국내 온라인 서점 중 검색조건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알라딘을 이용하여 '도서관'과 '사서'로 검색하였다. 검색조건은 제목, 저자, 출판사와 목차로 하였으며 국내도서 > 어린이 > 동화 > 국내창작동화로 폭을 좁힌 결과 222권을 선별하였다. 그 중 책 제목과 목차 그리고 책 소개 글에 '도서관'과 '사서'를 포함하는 도서 52권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¹⁾

선별된 동화 52권을 살펴본 뒤 도서관을 주요 배경으로 하거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화 14권을 최종 선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동화 A를 제외하면 모두 2009년 이후 출간되었으며, 동화의 특성상 판타지, 공상, 의인화 등의 상상력을 기반한 동화가 많다. 글자크기나 분량으로 보았을 때 동화 A, F, H, I, J, K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이며, 동화 H는 유일한 단편동화이다.

본문에서는 모두 축약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으며, 분석대상 동화 목록은 <표 1>과 같다.

1) 2013년 12월 27일 검색결과, 알라딘은 온라인서점 중 유일하게 목차를 검색조건으로 제공한다.

〈표 1〉 분석대상 동화 목록

	제목	출판사	지은이	출간년월	장르	축약표현
A	비밀의 도서관	더블유출판사	노영수	2003. 07	판타지	비밀도서관
B	사랑의 도서관	한림출판사	고정옥	2009. 07	의인화	사랑도서관
C	도서관벌레와 도서관벌레	파란정원	김미애	2010. 01	사실	도서관벌레
D	똥 싸는 도서관	미래아이	김하늬	2010. 03	사실	똥도서관
E	쉿! 도서관의 비밀을 지켜 줘	도도북	이만순	2010. 08	판타지	쉿도서관
F	하타리의 눈	나무늘보	송경진	2010. 09	판타지추리	하타리
G	꿈꾸는 도서관	여름숲	정혜원	2010. 11	의인화	꿈도서관
H	도서관 길고양이	푸른책들	김선아	2010. 11	사실	길고양이
I	앗! 도서관의 책들이 사라졌다	도도북	이학진	2010. 12	판타지	앗도서관
J	코끼리아줌마의 햇살도서관	비룡소	김혜연	2011. 03	사실	햇살도서관
K	9만 개의 별 - 마지막 종이책	쌤터사	심금	2011. 10	공상	9만개의별
L	독후감 쓰기 싫은 날	주니어김영사	김은중	2012. 10	판타지	독후감쓰기
M	꼬마 사서 두보	키다리	양연주	2013. 01	사실	꼬마사서
N	도서관에서 3년	아이세움	조성자	2013. 06	판타지	도서관3년

1.3 선행 연구

대중문화나 문학텍스트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 연구에서 참조할 선행연구는 무척 제한되어 있다.

조찬식, 박민영(1999)은 소설과 영화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소설 두 편과 영화 한 편을 분석하여 거기에 반영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탐구하고 분석한 연구로서 텍스트 분석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전창호, 김선호(2005)는 영화를 통해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영화를 비교하여 양적 내용분석법으로 사서의 사회적 반영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와 좀 더 성격이 유사한 어린이와 청소년 책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세 편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최혜정, 현은자(2006)의 연구가 유일한 데,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도서관교육적인 내용

과 사서의 역할 및 독서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페레시와 알렉산더(Michelle Peresie and Linda B. Alexander)의 연구와 몬로(Suzanne S. Monroe)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페레시와 알렉산더(2005)는 청소년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사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하였고, 몬로(2008)는 어린이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도서관 경험의 이미지를 탐구하여 도서관에 대한 어린이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국내 선행연구가 매우 적고 이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거나, 한국작품과 외국 작품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작품만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구별되지만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방법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창작동화라는 연구 대상의 성격에 입각하여 텍스트

트를 분석하였다.

2.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의 모습과 역할

2.1 동화 속 도서관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동화에는 현실 도서관이나 작가가 상상한 도서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도서관 등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가 있는 반면 도서관이 가진 '수집'과 '대여'의 기능만을 차용한 동화가 있다. 후자의 예로 장난감이나 공구를 수집, 대여하는 도서관과 같이 어린이가 원하는 조건의 부모나 친구를 빌려주는 '사람도서관'

관'이나 이야기를 수집해서 들려주는 인물이나 물건을 도서관으로 표현하는 동화가 있다. 이런 동화는 현실의 도서관이나 사서의 이미지를 볼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동화 속 도서관은 어린이 이용자가 책을 읽고, 자료를 대출하며,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제 이용하는 도서관이며, 이들은 현실 세계의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상상한 미래세계, 저승세계, 판타지세계 등의 도서관으로 나타나기도 하다.

분석대상 동화 14권에 나타난 도서관을 도서관 종류별로 보면 학교도서관이 5편, 공공도서관이 9편이며 상상의 도서관이 3편으로 나타난다. 이들 동화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내용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작품별 도서관 관련 내용 요소

항목		동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종류	학교	○	○	○	○									
공공				○		○	○	○	○	○	○	○		○		○
상상	○										○		○			
(재)개관			○	○		○	○					○		○	○	
외관	호감				○	○						○		○	○	
	비호감								○				○			
방문목적	책읽기	○	○	○	○							○	○	○	○	○
	조사연구				○			○								○
	교수학습															
	문화활동		○											○		
역할과 가치	독서활동	○	○	○	○	○			○			○	○	○	○	○
	정보활용							○								
	이용교육		○	○	○			○						○	○	
	공공성												○			
	공동체		○									○		○		
책읽기의힘			○						○			○	○		○	○

2.2 도서관의 모습

『비밀도서관』과 『햇살도서관』, 『씻도서관』은 새롭게 생긴 도서관이며, 『사랑도서관』, 『똥도서관』, 『독후감쓰기』, 『꼬마사서』에 나타난 도서관은 최근 새로 지어졌거나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안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변화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동화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동화 출간 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03년 출간된 『비밀도서관』은 시골마을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마을에서 유일한 도서관이다. 하지만 책이 많지 않고 3학년인 주인공은 화요일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반납 업무와 도서정리 업무도 6학년 도서부원 언니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출간된 『사랑도서관』이나 『똥도서관』, 『꼬마 사서』는 사서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년 이상 시차를 두고 출간된 동화 내용을 통해 이 시기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2편, 어린이도서관이 3편으로 모두 규모가 크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모두 초등학생인 주인공들이 어른과 함께 도서관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공 엄마가 도서관 사서로 등장하는 『길고양이』를 제외하면 모두 아이가 혼자서 가거나 친구들끼리 도서관을 간다. 엄마와 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새로 생긴 도서관을 보고 들어

가는 『씻도서관』, 도서관에 갔다가 사라진 아빠를 찾으러 가는 『앗도서관』, 엄마 가게 건너편에 새로 생긴 건물(도서관)에 가는 『햇살도서관』 그리고 방학동안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과제를 낸 엄마에게 떠밀려 도서관에 가는 『독후감쓰기』 등에서 모두 아이가 혼자서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 사서인 엄마 심부름으로 도서관에 가는 『하타리』와 학교 과제를 하러 가는 『도서관3년』은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 이용이 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져야 한다는 점을 동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독후감쓰기』의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숲속 나무집처럼 생긴 2층짜리 건물로 울타리에는 덩굴장미가 가득 피어 있고 마당 한쪽에는 키 작은 느티나무’가 있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주인공도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다. 『햇살도서관』의 ‘이금례 도서관’도 ‘너무 예뻐서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지만 그렇게 재미있고 멋진 곳은 처음이라 자고 나면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인’ 도서관이다. 전자는 6개월 전에 생긴 어린이도서관이고 후자는 평생 김밥장사를 한 할머니가 유산을 기부하면서 세워진 4층 건물의 도서관이다. 『씻도서관』의 ‘넓은 바다 도서관’ 역시 새로 지어진 도서관이다. 엄마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민진이는 우연히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밝은 인사, 따뜻한 실내, 벽을 가득 메운 책’ 때문에 도서관에 호감을 가지게 된다.

2000년 이후 공공도서관 건립이 늘어나는 현실의 변화가 동화작가들에게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창작에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관과 내

부 인테리어는 어린이 독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된 책들이 주인공인 『꿈도서관』에서는 보존서고에 대해 ‘고요하기가 심해와 같고 구질구질하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보존서고에 보관된 책들도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책들로 묘사하고 있어 보존서고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도 『하타리』는 ‘도서관이 워낙 넓고 큰 건물이라 비싼 땅에 짓기는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지만 높은 언덕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건립비용을 기부한 할머니 이름을 딴 ‘이금례 도서관’은 ‘오랫동안 파출소와 우체국 사이에 어중간하게 버려져 있던 땅’에 지어졌다. 도서관의 열악한 입지조건은 현실에서도 당연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표현은 어린이 독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화 속 도서관은 대체로 최근 지어졌고 호감이 가는 외관에 찾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들어가면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 좋은 도서관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있음을 알았어도 처음 가 본 『도서관벌레』, 『똥도서관』, 『햇살도서관』의 주인공이나, 처음 생겼을 때 가보고 다시 찾은 『독후감쓰기』 주인공, 집 주변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것조차 몰랐던 『씻도서관』 주인공 등을 통해 도서관을 예쁘고 들어가고 싶도록 지었지만 도서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 들어가 본 도서관이라는 설정으로 주인공에게 극적인 경험

을 하기 위해 설정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도서관이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3 도서관의 역할

2.3.1 독서활동의 장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더구나 도서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동화에서 독서활동은 도서관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비밀도서관』의 다진, 『햇살도서관』의 진주, 『9만개의별』의 새별, 『도서관3년』의 상이는 책읽기를 무척 좋아하는 주인공이며 이들은 도서관은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 좋거나,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없어 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도서관에서의 독서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엄마가 병어리라고 친구들이 놀려서 친구들과 놀지 않는 진주는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건너편에 생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2064년 지구에 마지막 남은 종이책 도서관’을 지키는 새별이 역시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책벌레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도서관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랜다.

도서관에서 말썽만 피우다가 친절한 사서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두꺼운 책을 꺼내 읽는 『사랑도서관』의 아름이나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지만 ‘도서관에 가면 똥이 누고 싶은 이유’를 알고 싶어 도서관에 갔다가 책 읽는 재미에 빠진 『똥도서관』의 두배에게도 도서관을 이용한 독서활동은 중요한 사건이다. 부끄럼을 심하게 타는 아이 『꼬마사서』의 두보도

처음 도서관에 갈 때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 갈 정도였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독서왕이 되고, 도서관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깨우치면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꼬마 사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또래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독서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거나 성장하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 어린이 독자 역시 독서의 가치를 공감하도록 한다.

이와는 반대로 진짜 책을 읽는 것은 미련스럽다며 A4용지에 줄거리를 인쇄해 주는 『도서관벌레』의 동우엄마나 방학 동안 권장도서목록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한다고 강요하는 『독후감쓰기』의 지용이 엄마,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만 있으면 책을 읽지 않고 못 배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서인 『길고양이』의 다미엄마는 우리 사회가 가진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반영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그릇된 인식을 가진 어른의 강요를 이겨 내고 스스로 책읽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진짜 책을 읽는다.

이런 인물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개연성 있는 심리묘사와 행동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벌레』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시험에서 1등을 하고, 글짓기대회도 1등을 하는 영수의 비결이 도서관에서 책읽기를 즐기는 것이며, 역사동화를 읽으면 역사공부를 달달 외우지 않고

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꼬마사서』의 두보 역시 책읽기를 통해 성장했다고는 하나 독서를 통한 성장과정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 오기는 어렵다. 독서를 통한 성장은 인물 내면의 변화에 대한 묘사 없이 외적인 모습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살펴 본 동화에서는 대체로 도서관을 독서활동의 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주인공이 직접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억지로 도서관에 갔지만 책에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거나, 도서관에 갔다가 판타지 세계로 빠지면서 '책과 함께 했던 인물'들을 만나는 것 모두 도서관에서의 독서활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화작가들이 독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정보활용이나 문화활동 등 도서관의 다른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2 정보제공의 장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운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이용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활용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활용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재구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도서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에서도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도서관』과 『꼬마사서』의 사서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교육을 하는 등 독서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용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활용수업이나 도서관이용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을 위한 교육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똥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최근 2년 동안 학교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학급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별레』에서는 ‘한가운데 길고 큰 책상 1개와 둥근 책상 2개’가 있다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 역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보여주는 동화로 『똥도서관』, 『도서관3년』, 『하타리』가 있다. 『도서관3년』에서 상이는 과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에 갔다가 사물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도서관에 갇히게 되고, 『똥도서관』에서 두배는 ‘도서관에 가면 왜 똥이 마려울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두 편 모두 정보이용을 위해 도서관에 갔지만 독서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하타리』는 부엉이박물관에서 들은 부엉이 이야기와 도서관 진열장에서 본 박제부엉이, 핀란드 머그컵에서 본 부엉이 문양의 공통점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서는 정보검색 방법과 자료 찾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런 사서의 설명을 통해 독자도 정보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됨으로써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이

해하게 된다.

어린이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발달로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의 수많은 자료를 활용하는 일은 어린이의 자기주도적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인공 아이들이 자신의 호기심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찾고 읽고 탐구하는 과정은 도서관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를 어린이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서관이 보여준 역할이 독서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보제공·이용·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역할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3.3 문화활동의 장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문화활동은 독서활동과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사랑도서관』은 여름 독서캠프에서 작가와의 만남도 가지고 친구들과 밥도 해 먹으면서 하룻밤을 도서관에서 책 읽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학교도서관에서 별빛도서관, 달빛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 외에도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는 영화상영이나 책의 날 행사, 원화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 5편 중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동화가 『사랑도서관』 한 편밖에 없다는 점은 무척 의외라고 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동화는 학교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활동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동화들도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배경인 『독후감쓰기』에서는 책잔치에서 연극도 하고 떡도 나누어 먹고 한바탕 시끌벅적한 잔치를 하고, 『햇살도서관』에서는 사서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직접 문화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숫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면서 ‘어린이 영화를 보여 주거나 사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곳’이며, ‘작가 선생님들의 강연이 열리기’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을 알려주고 있다. 『도서관별레』에서도 주인공들이 찾아간 시립도서관 게시판에서 ‘토요일마다 영화 상영, 달마다 한 번씩 그림 전시회, 역사 장소 답사하기, 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됨으로써 도서관 문화활동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보여주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도서관의 기능을 편협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2.4 도서관의 가치와 이념

2.4.1 도서관의 공공성

도서관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공공’이란 ‘모든 시민’이라는 뜻으로 성별, 연령, 직업, 장애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도서관’을 의미한다(이종권, 노동조 2011). 학교도서관 역시 학교라는 공공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9만개의 별』의 도서관을 세운 새별이 할머니는 “처음 도서관을 세우고 그걸 아빠에게 물려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내면 더 고급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많은 돈을 내고 더 좋은 책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자에게 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서관과 책은 아주 오래 전부터 평등함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중략... 누구에겐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고, 누구에겐 더 적은 것을 보여 주지 않아요. 책은 언제나 자신에게 손을 뻗어 책장을 여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죠, 결국 누가 얼마나 자기의 손으로 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책은 열리고 닫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9만개의 별 - 마지막 종이책』 162-163쪽

다른 동화에서는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책을 빌려 볼 수 있으며(『도서관별레』, 『숫도서관』, 『9만개의 별』, 『꼬마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컴퓨터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도서관별레』, 『숫도서관』)는 등의 공공 이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인화된 책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꿈도서관』의 학습만화는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칼로 두 장을 베어’가는 바람에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보존서고로 보내졌다. 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주고받는 책들의 대화는 독자로 하여금 공

공재로서의 도서관 자료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도서관의 공공성은 '공정한 돌봄'의 성격으로도 나타난다.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름이(『사랑도서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도서관으로 도망 오는 창민이(『독후감쓰기』)는 도서관에서 편견 없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서와 재미있는 책읽기를 통해 소외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 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된다.

『꿈도서관』에서는 아이가 죽은 뒤 엄마가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도서관 책을 공중이 이용함으로써 이용가치를 넓힌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생 김밥장사로 번 돈으로 도서관을 세웠고 할머니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고 사서가 된 이진숙씨는 '이금례 도서관'에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묘사와 설명은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 그리고 사서라는 직업이 모두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공성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2.4.2 책의 가치

도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지만 어린이는 주로 도서자료를 이용한다. 분석 대상 동화 14권의 주인공 어린이는 책읽기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한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주인공들은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사람들 말처럼 단지 종이 덩어

리가 아니야...중략... 이 책들은 꿈이고, 추억이야. 그리고 자유이고, 손길이며...중략... 책을 쓴 작가, 그리고 책을 만든 사람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고민과 웃음이 모두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중략... 그래, 생명으로 해 두자! 이곳의 종이책들은 하나하나 숨 쉬는 생명들이야.”

『9만개의 별 - 마지막 종이책』 58쪽

위의 대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책의 가치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읽힘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꿈도서관』의 보존서고에서 비싸다고, 장정이 멋있다고, 부자집에 있었다고 자랑하던 책들은 진심으로 읽으면서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진 동화책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다. '읽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눈물을 흘릴 만큼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이 책들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책들의 대화를 통해 책의 가치는 독자와의 교감임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 생긴 『숫도서관』에서는 세계 도서관 요정들의 모임이 열린다. 도서관 요정들은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데, '요즘은 나쁜 놈들이 거짓말이 가득한 책을 이용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 사람들과 텔레파시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책, 좋은 마음의 전파력은 강하다는 것을 오랜 세월 겪어 온 요정들은 각자 오래 전에 있었던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카네기, 스티븐 스펠버그, 박봉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파티를 한다. 『앗도서관』의 주인공 도영이 역시 아빠를 찾아 구립도서관에 갔다가 '바벨의 도서관'의 세계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책을 없애려는 '북북단'과 맞서 싸우

는 모험을 하게 된다.

『독후감쓰기』에서는 소원의 책에 책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쓴 뒤 실제 도서관 책이 모두 사라진다. 도서관에 온 아이들은 책이 없어 굳게 닫힌 도서관 문에 ‘책 읽고 싶다고~!! 언제까지 기다려?’, ‘도둑님아 제발 우리 책 돌려주세요!!’, ‘책을 돌려줘!’ 등의 쪽지를 남긴다.

이들 동화를 통해 책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담아 왔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책은 진심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읽힘으로써 더욱 가치가 있음을 어린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2.4.3 책읽기를 통한 성장

말을 심하게 더듬는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성잡지를 읽으며 자란 『햇살도서관』의 진주는 엄마를 빙어리라고 놀리는 아이들과 놀지도 않고, 미용실에서 엄마 심부름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다가 길 건너에 생긴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읽으며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우연히 『마틸다』를 읽게 된다. 마틸다도 친구 없이 혼자 지내고, 책을 좋아하고 혼자서 도서관에 다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집으로 빌려 갈 수 있다’는 정보도 얻게 된다. 독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는 것은 문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이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 딸 진주에게만 말을 하는 진주엄마는 사서가 권해준 『빨강머리 앤』을 읽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다.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가

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났다. 물속에 들어간 마른 미역이 불어나듯 그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선명해졌다. 그러더니 그들 모두가 명혜씨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166쪽

진주엄마 명혜씨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본 것이다.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던 기억, 자신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에서 돌덩이 같은 것이 빠져나간 기분’을 느낀다. 자신에게 돌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책을 읽고, 주인공에게 공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어 치유하는 과정은 어린이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화장실에 간헐다 나온 뒤부터 화장실에 갈 때 문을 잠그지 못하는 『도서관3년』의 상이는 사서 사물함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도서관에 갇히게 된다. 밤사이 『안네의 일기』에서 은신처에 숨은 안네와 만나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황을 위로받는다.

이처럼 독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에게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다. 하지만 책읽기를 통한 성장에 이런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책을 통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 넓고 깊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동화에서는 문학을 통한 치유만을 다루고 있지만 독자들은 비문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성장하기도 한다. 책읽기를 통한 성장을 더욱 더 폭넓게 다루는 동화가 없다는 것은 독서를 통한 성장에 대한 고민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의 독서를 학습을 위한 기본지식 쌓기나 독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학 능력을 높이는 도구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런 일반의 관념은 『도서관벌레』, 『숫도서관』, 『독후감쓰기』의 주인공 엄마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호기심 때문에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읽으면서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된 『똥도서관』의 두배나 친절한 사서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읽게 되고 책읽기를 즐기게 된 『사랑도서관』의 아름이와 『꼬마사서』의 두보 역시 책 읽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내고 성장한다. 하지만 책을 통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자가 공감할 만큼 인물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표현만으로 주인공이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어 아쉽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동화가 구체적으로 주인공의 변화를 보여주기에 분량이 적고,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2.4.4 함께 읽는 책읽기

도서관은 누구나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곳이지만,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함께 책을 읽거나 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독서동아리나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하지만 독서동아리를 통한 책읽기나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깊은 대화

를 나누는 장면은 볼 수 없고,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통한 함께 읽는 책읽기는 『햇살도서관』 한 편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독서를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함께 읽는 책읽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보여 주는 증표라고 할 만하다. 책은 혼자 읽으면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여럿이 함께 읽으면 나와 다른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연한 사고가 이루어지며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함께 읽는 책읽기에 대한 내용이 동화 텍스트에 더욱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함께 읽는 책읽기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만들어 나가야 할 독서활동의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서를 ‘자기와의 은밀한 대화’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벗어야 한다.

2.4.5 지역 공동체로서 도서관

도서관은 공동체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이 때에 지역 공동체로서 구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서비스 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사회적 양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도서관』에서 진행한 여름 독서캠프에서는 친구들과 밥도 해 먹으며 하룻밤을 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급식을 하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렸고, 도서관에는 방학 후 아이들이 더 많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서관 아래 판타지 공간을 함께 다녀 온 『독후감쓰기』의 지웅이와 창민이는 도서관 ‘책잔

치'를 하고 두 아이 엄마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두 편에 불과하고 역할 비중도 크지 않지만 지역 공동체적 성격으로 도서관을 조금이나마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3. 창작동화에 나타난 사서의 모습과 역할

3.1 동화 속 사서

분석대상 동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서는 성별을 알 수 없는 2권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다. 이는 사서 17명 중 13명이 여성이라고 분석된 Peresie and alexander(2005)의 연구나 33편 영화 중 25편에서 여성 사서가 출연한다고 분석된 전창호, 김선호(2008)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여성 비율이 높다. 14편 중 『꿈도서관』 한 편에서만 남성 사서가 나타나며 그 역할 비중 또한 미미하다.

결혼여부는 주인공의 엄마가 사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아이들이 '이준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혼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은 모두 사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사서교사인지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는 초등학생들은 어른의 연령이나 기혼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생

님이라는 호칭을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이다.

외모는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행동 설명을 통해 느껴지는 인물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인상은 사서를 대하는 어린이 이용자의 느낌이나 반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알 수도 있다. 이런 묘사와 설명을 통해 동화에 나타나는 사서의 이미지와 역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2 사서의 외모와 인상

동화에 나타난 사서의 외모와 인상은 대체로 뚱뚱하지만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거나 예뻐장하고 순하게 생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꼬마사서』에 새로 부임한 사서선생님은 '몸도 뚱뚱하고 손도 커다란 이준마'였으며, '눈이 정말 작고, 뺨은 호빵처럼 뽕뽕'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인사성이 밝으며 길을 가르쳐준 아이와 아이스크림을 나눠먹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과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서선생님은 부끄럼이 유난히 많은 주인공 두보가 도서관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 책을 못 찾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책을 다 읽고 반납하는 아이에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후감쓰기』의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사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어른들까지도 모두 호호마녀, 거북이, 애벌레 같은 별명을 이름 대신 쓴다. 호호마녀는 '하마 같은 덩치, 뒤로 질끈 묶은 긴 머리카락, 동그란 얼굴에 방실 방실 웃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6개월 전에 방문했던 주인공 지웅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표 3〉 작품별 사서의 모습과 역할

동화 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여성	○	○		○	○	○	○	○	○		○	○	○
기혼						X	○	X	○		X	X			
외모와 인상	똥똥함										○		○	○	
	호감형		○					○					○	○	
	비호감형	○									○				
	사교성		○					○					○	○	
	친절성		○					○			○	○	○	○	
	능동성		○					○				○	○	○	
	정숙 요구		○	○	○	○						○		○	
역할	자료 안내		○		○		○				○	○		○	
	이용교육						○					○	○		
	정보활용교육						○								
	독서교육		○					○					○	○	
	공정한 돌봄		○								○				
	책 읽어주기										○				
	대출 반납		○		○		○				○	○	○	○	
	자료관리 제반	○	○				○	○				○		○	

불러주고, 링크를 날린다. 이런 사서의 겉모습과 인상에 대한 묘사는 예쁘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사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의 눈에 비친 『사랑도서관』의 셋별초등학교 사서선생님은 ‘책을 무척 사랑하고 도서관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분’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책 한 권 한 권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꿈도서관』에 새로 온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은 동글하니 순하게 생긴 젊은’ 사서 역시 ‘책 한 권마다 인사를 하듯 서고 안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서로서 도서관 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 주어 사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사서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비밀도서관』의 다래초등학교 도서관은 6학년 도서부원들이 도서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집에서 라벨을 붙이려고 책을 들고 가는 도서부원에게 도서실 담당선생님은 “너는 행동이 느려서 아무래도 내가 직접 라벨을 붙여야 할 것 같다”며 ‘책을 뺏다시피’ 받아간다. ‘날카로운 눈매에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말랐다’고 묘사된 선생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약간 무섭게 말해서 주인공을 ‘움츠러들게’ 한다.

『똥도서관』의 두배 역시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려고 마음먹었지만 ‘간간한 사서선생님이 3년 만에 처음 도서관에 온 장한 학생이라며 인사를 시킬’까봐 걱정을 한다. 도서관에 가서는 ‘간간한 사서선생님’이 없다는 것에 안심하지만 이런 선입견은 도서관을 이용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햇살도서관』 이진숙 사서는 덩치가 커서 코끼리같다는 인상을 주고, 아이들은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섭다고 느낀다. 스스로 비호감을 주는 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모르게 슬쩍 책을 옆에 두는 방법으로 서비스한다. 첫인상은 무섭지만 상냥한 목소리, 친절할 말과 행동이 사서 이미지를 바꿔주는 하지만 ‘하마 같고’, ‘코끼리 같이 똥똥하기 때문에 무섭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는 묘사는 오히려 외모에 대한 편견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연구에서 사서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묘사된다는 안경 착용이나 쪽머리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찬식, 박민영(1999)의 연구에서 밝힌 소극적이고 정적인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동화 속 사서들은 어린이를 상대하는 어린이사서이며 비록 외모가 비호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상냥한 말씨 등으로 긍정적인 인상으로 바뀌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차이가 난다.

3.3 사서의 역할

3.3.1 통제하는 사람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또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출입문에는 ‘조용히’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아이들이 웃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정숙을 요구

한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통제를 가하는 사서의 모습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숙 요구’이다. “쉿, 조용”(『똥도서관』), “애들아, 쉬잇!”(『췌도서관』)과 같이 업무적인 투로 말하기도 하고, “아름아, 도서관에 오면 압전히 책 읽어야 하는 거 알지?”, “그럼 앞으로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책 읽겠다고 선생님이랑 약속해.”(『사랑도서관』), “옆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다 같이 눈으로 읽도록 하세요.”(『꼬마사서』)와 같이 상냥하게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정숙 요구가 사서 역할 비중 중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작가들이 사서직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서직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며 사서는 이를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창호, 김선호(2008)의 연구에서 사서 이미지의 고정관념으로서 정숙 요구 장면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창작동화에서는 14편 중 6편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중 3편은 역할 비중이 거의 없는 사서이다. 이는 동화가 어린이를 독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귀결된 것이다. 사서의 직업적 이미지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역할 설정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 할 만하다.

3.3.2 자료 안내자

도서관에 있는 많은 자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성격이나 독서

능력, 평소 독서 취향 등에 맞게 입을 책을 안내하는 일은 어린이사서에게 중요한 업무이다. 이는 사서직이 전문 직업집단으로서 유지, 발전할 수 있기 위한 역할모델 중 독서상담, 독서치료 등의 역할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박준식 2000)로서의 모습이며,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역할 중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연옥 2005)의 측면에서 어린이 이용자를 응대하는 사서의 직업적 가치로서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14편의 동화 중 어린이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자료를 골라 추천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사서는 5명이다. 『꼬마사서』에서는 두보가 유난히 부끄럽기 많다는 것을 알고 두보와 꼭 닮은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화를 소개하는 사서선생님이 나온다. 『사랑도서관』에는 글을 잘 읽지 못하면서도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두꺼운 책만 읽는 아름이에게 책을 권해주는 선생님, 『똥도서관』에는 책벌레를 보고 궁금해하는 주인공에게 곤충사전을 추천하며 검색해 주는 선생님, 『9만개의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온 악당들에게 자전거 여행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새별이가 등장한다. 모두들 이용자의 성격이나 기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서를 권해주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을 안내하는 정보 중재자로서 사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햇살도서관』에서 이진숙 사서는 자신이 이금례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

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책을 옆에 두고 온다. 날마다 혼자서 도서관에 오는 외로운 진주에게는 『마틸다』를, 축구를 좋아하는 정호에게는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명혜씨에게는 『빨강머리 앤』을 권해주거나 책이 눈에 띄도록 한다.

비록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름이에게 『툼소여의 모험』을 권해준 것이나 여섯 살 진주에게 『마틸다』를 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²⁾고 할지라도 어린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자료를 찾고 소개하며,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는 일은 사서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자료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런 사서에 대한 묘사와 서술은 사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모습을 통해 독자는 사서가 적절한 자료를 안내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3.3 교육전문가

학교도서관 사서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는 어린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자료를 안내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독서를 생활화하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는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박준식 2000)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역할 중 어린이와 어린이자료의 매개능력(이연옥 2005) 중 하나이다.

2) 아름이와 진주의 독서력과 연령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주인공이 나오는 책을 골라 주려는 의도가 낡은 결과이다.

현대사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자료의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책에서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최혜정, 현은자 2009)가 된다.

하지만 분석대상 동화 14편 중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직접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서가 등장하는 동화는 『독후감쓰기』, 『꼬마사서』, 『하타리』 3편에 불과하다. 『독후감쓰기』의 호호마녀 사서는 시간이 없으니 책을 찾아 달라고 주문하는 학부모에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또박또박 책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꼬마사서』에서는 두보가 스스로 배가원리나 청구기호 등에 대해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타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방법뿐만 아니라 정보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직접 찾도록 하고,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통해 사서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컴퓨터 단말기는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검색 단말기야. 우선 너희가 찾고 싶은 책이 있는지 여기서 찾아보자꾸나. ... 키워드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글의 뜻을 풀어낼 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란다.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나 할까. 주제어라고도 할 수 있지. 이 주제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원하는 책을 빨리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너희들이 책을 찾을 때에는 되도록 많은 주제어를

반복해서 넣어 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니까.”

『하타리의 눈』 42-43쪽

『독후감쓰기』에서는 학부모에게 지시하듯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꼬마사서』에서는 학교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학급별 수업을 통한 이용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타리』에서는 사서가 주인공의 엄마리는 점에서 사서가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에게도 이렇게 상세하게 이용지도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별레』는 친구가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 주고 있으며, 『꼬마사서』에서는 사서가 직접 두보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자 두보가 직접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된다. 『똥도서관』에서는 주인공이 혼자서 자신의 지적호기심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직접 자료를 찾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용한다. 『도서관3년』의 주인공들도 과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사서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동화에서 사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장면이나 정보활용교육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 사서들이 보여주는 교육자적 측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초등학교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 운영자로서의 역할은 가중되는 반면에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정진수(2009)의 연구에서 밝혀진 현실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도서관을 독서활동의 장으로만 인식할 뿐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정보활용의 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서를 개인적인 활동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사랑도서관』에서 사서선생님은 아이들이 책도 읽고 도서관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10분 독서’를 제안하고 도서관에서 만화책만 보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기를 권하는 등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을 진흥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독후감쓰기』에서는 사서가 독후감 쓰기 때문에 책 읽기가 싫다는 주인공에게 독후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책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귀를 기울여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 얘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 그걸 내 마음대로 적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난 뒤 읽어 보면 언제라도 지금의 내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타임머신 기계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 수 있는 거지”

『독후감쓰기 싫은 날』 131쪽

독후감이 어렵고 쓰기 싫어 책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독후감은 책 읽은 느낌을 남겨두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꿈도서관』의 도서관은 겨울방학 동화읽기 특강을 운영한다. 하지만 새로 온 사서가 직접 특강을 진행하겠다는 말에 다른 사서는 이렇게 말한다.

“외부 선생님 초빙하면 되는데 굳이 하겠단 이유가 뭐야? 수업 준비하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귀찮지 않아?”

『꿈도서관』 107쪽

이런 사서의 모습은 직접 특강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책을 통해 감동을 나누는 사서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서의 업무는 쉽고 단순한 도서정리 업무에 그치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조찬식, 박민영 1999)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3.4 공정한 돌봄³⁾

『사랑도서관』의 사서선생님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오는 아람이에게 초콜릿을 준다. 하지만 아람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 “선생님이 이런 걸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라고 인사를 가르친다. 이런 사서의 모습은 단순히 직업인으로서 사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사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학교에 오는 아람이에게 셔츠를 사 주고, 냄새 난다며 다른 아이들이 캠프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자 목욕탕에 보내 깨끗하게 씻고 오게 한다. 형편이 어렵고 아이들에게 소외된 아이를 감싸 안음으로써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 것이다.

『독후감쓰기』의 창민이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집나간 엄마를 둔 힘든 형편에 있으며, 학교에서는 말썽꾸러기로 알려진 아이이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호호마녀의 독서

3) 이 용어는 김종성(2011)의 『어린이서비스론』에서 차용한 것이다.

지도와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도서관이 단지 대출반납, 문화 행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서 역시 도서관 업무를 보는 직업인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이고 '사람'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서와 이용자의 선입견 없는 인간적인 유대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어,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시설이 아니라 풍성한 인간성의 발전을 도와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장시켜 준다.

“도서관은 정말이지 보물창고 같았다. 없는 것이 없었다. 궁금한 건 모두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쳐 났다. 그리고 또 하나, 사서 선생님이 있다. 나는 사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 할머니, 영주 다음으로 좋다. 히히히 웃어 주는 것도 좋고, 좋은 책을 많이 알려 주는 것도 좋다.”

『꼬마 사서 두보』 72쪽

4. 결 론

문학은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가 가장 많이 읽는 분야이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가 살고 경험하는 세계와 상상하고 염원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동화는 어린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런 문학적 경험을 위해 도서관을 공간적 배

경으로 설정한 동화는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도서관이 가진 '수집'과 '대출'이라는 주요 기능 중심으로 이미지를 차용하기만 했으나 2010년 전후로는 주인공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어린이가 살아가는 세계에 도서관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동화 작가들이 도서관 환경의 변화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동화창작의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렇게 창작된 우리나라 동화를 살펴봄으로써 대중에게 전달되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창작동화 중 도서관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동화 14편을 분석하였으며, 도서관의 걸모습과 독서, 정보활동,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도서관이 가진 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4편 중 7편에 나타난 도서관이 최근 개관했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으며, 외관이 어린이에게 좋은 인상과 친근감을 주고 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은 주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지적 호기심이나 과제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주인공도 5편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도서관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방문은 전혀 볼 수 없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독서 활동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이 독서활동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가치와 독서의 가치를 다룬 내용이

많지만 독서를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에게 공감함으로써 스스로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구조를 이룬다. 하지만 그 과정이 피상적으로 묘사됨에 따라 작중 인물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볼 수 없어 독자로 하여금 인물에 깊이 공감하도록 돕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난다.

사서에 대한 내용은 사서의 외모와 인상에 대한 내용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사서의 성별은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외모는 대체로 뚱뚱하지만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거나 순하고, 착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서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진 사서는 1편뿐이다.

도서관을 독서활동의 장으로 인식하는 만큼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사서의 역할은 볼 수 있지만 정보활용 방법과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하지만 동화에 나타난 사서들은 책은 꿈을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독서교육을 한다. 선입견 없이 어린이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사랑 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을 실천하기도 한다. 이런 사서의 모습은 직업인에 앞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사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분석 대상 동화 14편은 지금까지 출간된 동화 중 도서관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화작가

들의 인식이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강조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도서관에 대한 작가들의 경험이 창작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지만 도서관과 사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작가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현실의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이 풍부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전·현직 사서 또는 배우자가 사서인 작가의 작품이 4편 있다. 『비밀도서관』, 『씻도서관』, 『앗도서관』 그리고 『하타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비밀도서관』은 도서관의 가치나 사서의 가치에 대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씻도서관』과 『앗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성장한 역사 속 인물과 도서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측면만 강조된다. 『하타리』는 도서관과 사서의 현실을 보여주고, 도서관 교육의 측면을 잘 살렸지만 이야기의 재미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였다. 요컨대 도서관을 잘 알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작가가 쓴 동화도 도서관의 역할이나 사서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충실하고 균형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서관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동화의 작품성과 문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가와 전문 동화작가가 협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독서와 도서관이 소재가 되는 동화는 더 많이 창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다거나, 독서를 강요하고 무조건 독서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제시하는 동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독서의 장으로서의 모습을 넘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9만개의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 한번이라도 마음을 사로잡는 책을 읽는 적이 있는지, 너무 설레고 공감이 가서 눈 한 번 뺄 수 없던 적이 있는지, 마지막 장을 덮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웃음이 터

져 나오는 책”이 도서관을 배경으로 올바른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 어린이 독자에게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화 창작을 위한 노력이 투여된다면 이 사회에 이상적인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데 적지 않은 기여할 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종성. 2011. 『어린이서비스론』. 대구: 태일사.
- [2] 박준식. 2000.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1-40.
- [3] 전주원. 2010. 청소년의 삶과 성장의 서사, 그리고 서사적 정체성. 『독서연구』, 24: 313-343.
- [4] 신종락. 2009. 어린이책 출판동향에 관한 연구: 출판 유통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5(1): 215-235.
- [5] 이연옥. 2005.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233-256.
- [6] 이종권, 노동조. 2011. 『공공도서관 서비스 경영론』. 서울: 문헌.
- [7] 전창호, 김선호. 2008. 영화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 분석. 『정보관리연구』, 39(1): 151-176.
- [8] 정진수. 2009.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81-306.
- [9] 조찬식, 박민영. 1999.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소설과 영화 속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54(2): 103-122.
- [10] 최혜정, 현은자. 2009. 그림책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내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51-71.
- [11] Peresie, Michelle and Alexander, Linda B. 2005. “Librarian Stereotypes in Young Adult Literature.” *Young Adult Library service*, Fall 2005: 24-31.
- [12] Monroe, Suzanne S. 2008. “Check it Out: Diverse Image of the Library Experience in Children’s Literature.” *School Libraries Worldwide*, 13(1): 1-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Jong-Sung. 2011.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Daegu: Taeilsa.

- [2] Park, Joon-shik. 2000. "Changing Roles of the Librarians under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21-40.
- [3] Seon, Ju-Won. 2010. "The adolescent's life and the growth narrative, and narrative ident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4: 313-343.
- [4] Shin, Jong-Rak. 2009. "A study on the printing trend of children's books: distribution and marketing in the center."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 35(1): 215-235.
- [5] Lee, Yeon-Ok. 2005. "A Study on the Roles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233-256.
- [6] Lee, Jong-Kwon and Noh, Dong-Jo. 2011. *Service management for public libraries*. Seoul: Mun Hyun Publisher.
- [7] Jeon, Chang-Ho and Kim, Sun-Ho. 2008. "Analysis of the Image of Librarians in Motion Pictur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151-176.
- [8] Chung, Jin-soo. 2009. "Teacher-Librarians' Perceptions of Their rol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81-306.
- [9] Cho, Chan-sik and Park, Min-young. 1999. "A study on the image of library and librarianship as reflected in the public culture." *DOSEOGWAN*, 54(2): 103-122.
- [10] Choi Hye-Jeong and Hyun Eun-Ja. 2009. "An Analysis of the Content for Relative Library Education Through the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51-71.